

달빛내륙 철도 건설·COP28 유치 제1현안 건의

〈광주시〉

〈전남도〉

민주, 광주시·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시, 군공항 이전·공기산업 육성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등 26건
도,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
사업 20여건 국고지원 협조 요청
송영길 대표 “현안 적극 돕겠다”

광주시와 전남도,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시의 현안 건의사업 5건과 국비지원 건의사업 10건, 국비지원 추가 건의사업 11건 등의 해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광주시는 첫 번째 현안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 철도 건설 사업을 제시했으며 광주 군공항 이전, 인공지는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 광주형 지역일자리 성공을 위한 경자혜택 지원 확대,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국가사업 추진 등의 해결을 제안했다.

이용섭 시장은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동서 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자 영호남인들의 염원인 만큼 반드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또 친환경 공기 산업 육성, 국가고자기장연구소 구축, 광주시의료원 설립,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인공지능 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는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4533억원(21건) 규모의 국비



21일 오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원도 건의했다.

시는 추가로 국비 지원 서면건의를 통해 맞춤형 RE100 구원 에너지통합관제 실증, 장록습지 훼손지 복원, 자율주행차 대응 편의 내장 부품산업 고도화, 황룡강 하천정비,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등 10건 519억원 규모의 국비 추가 확보에도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 4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 6월 정의당과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3조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한 10가지 현안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주요 현안 10개 사업에 대해 설명

하고, 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정책 건의 사항 10건 가운데 우선, 세계 198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기후환경 관련 지구촌 최대 행사인 COP28 개최지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서 지를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정책적 판단을 통해 개최지를 결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주·사천 등 경남 6개 시군과 공동 개최한다는 점에서 동서화합형 개최지이며, 서울 등 8개 시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방식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권을 개최지로 선정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오는 202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COP28 행사의 국내 유치에 나선 가운데, 여수와 부산, 인천, 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주 등이 지역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선7기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제도 개선도 당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다수 정부 부처와 연계한 윈스톱 인허가 처리 전담기구 신설 등을 담은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발의)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해당 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5~6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2년10개월로 단축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풍력발전사업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제7조 제3항 전기사업의 허가) 개정 필요성도 설명했다. 국내 초기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금 및 기

술력, 산업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한편의 직접 사업참여가 절실하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준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며 “국고 예산은 전남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당 대표 자격으로 전남에 와서 감개가 무량하다”며 “혁신공항 조기 착공, 전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6월 임시회 통과 등 전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민주 경선일정 갈등 악화일로…오늘 의총 앞두고 계파간 전운 고조

대선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22일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에 전운이 깊어가고 있다. 대선 후보를 9월에 선출하느냐, 11월에 선출하느냐를 놓고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진영이 양분되면서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은 21일 전면에 나섰다. 정세균 전 총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상대(국민의힘)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경기)지사로 통 큰 결단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전혜숙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를 만에 2만명을 넘겼다”며 경선 연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가 불가하다는 입

장이 확고부동하다. 본선 전략 차원에서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그런 연후에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 성과를 보이며 원팀으로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선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천재지변 등이 아닌 이상 경선을 연기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경선 유희를 떠나 원칙의 변경은 정권재창출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용진 의원,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이 지사의 ‘경선 연기 반대’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의총에서는 경선 연기를 놓고 당무위를 개최 하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 까지 해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를 둘러싸고 경선 연기파는 코로나 상황 등이

‘상당한 사유’라며 당무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행 고수파는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경선 일정은 당무위 의결이 아닌 최고위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당내의 세력 분포상 당무위가 개최되면 아무래도 경선 일정이 미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당무위 개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우선 송 대표가 당무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의총에서 당무위 개최를 결정할 수도 없다. 또 의총에 이어 당무위 개최가 현실화된다면 친문 진영의 실력행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총에서 경선 연기론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듣고 송 대표가 최종 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송 대표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당내 진영이 크게 갈라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권 박용진·추미애, 야권 유승민 상승 ‘두각’

KSOI 대선 적합도 조사

윤석열 38%·이재명 25%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나란히 범여권과 범야권의 3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세대교체를 내건 박 의원과 개혁 보수를 내건 유 전 의원은 그간 낮은 인지도 탓에 고전해왔지만, 정치권을 휩쓴 ‘이준석 효과’를 계기로 약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주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38.0%로 1위를 유지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7%포인트 하락한 25.0%였고,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0.4%포인트 내린 12.2%였다.

범여권 주자들만 대상으로 후보 적합도를 물었을 때에는 이재명 지사(28.4%), 이낙연 전 대표(12.3%)에 이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7.4%)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0%), 정의당 심상정 의원(5.4%), 정세균 전 국무총리(5.2%) 순이었고 ‘적합후보 없음’은 17.9%였다.

범보수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37.5%), 홍준표 의원(9.1%), 유승민 전 의원(8.6%), 오세훈 서울시장(5.2%) 순이었다. ‘적합후보 없음’은 11.0%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